

피해자는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학생 범수연입니다. 저희 학교의 신성진 교수님은 같은 그룹 팀 멤버인 피고인 이경록을 학교 특강 교수로 초빙하셨고, 이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피고인을 만났기 때문에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몇 차례 일거리를 추천하고 소개한 적이 있으며, 5 월 23 일 본인의 공연 게스트로 저를 섭외하기도 했습니다.

사건경위 (현재 진행중인 사건 : 서울중앙지법 2025 고평 975 호)

6 월 11 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달라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일본 공연을 추진 중이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컬 강습을 할 강사를 구하고 있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6 월 21 일**, 서울대입구역에서 5 월 23 일 공연에 함께 참여했던 건반 세션 친구와 함께 셋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 차 만남은 이자카야에서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2 차 만남은 피고인은 최근 이사를 갔으므로 집들이를 하면서 본격적인 사업내용을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집들이 선물을 가져오면 부담이 될까 봐라고 했습니다.

2 차에서 피고인은 저와 건반친구에게 술을 계속 권유했으며, 저는 술 맛이 너무 써서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음 후 식탁에서 쓰러져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저를 강간 및 추행과 동시에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잠시 범행 자리를 비우고 거실로 나간 사이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재판은 8 월 20 일에 진행되었고, 두 번째 재판은 9 월 3 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당일 저를 찍었던 성관계 영상 2 개와 거실에 자던 건반 세션 친구 추행영상 1 개 외 추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석했던 건반 세션 친구는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합의한 상태입니다.

제가 변호인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은, 피고인은 절대 초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거에 피고인은 명백하게 제 가슴을 터치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들었던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만날 때마다 과도하게 술을 권유한 점 역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까봐, 피고인의 평판과 인맥, 그리고 교수라는 지위에 눌려서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미심쩍은 상황에 있었는데 왜 일거리를 받았고 항의하지

않았냐는 말을 들을 까봐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포렌식 결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에는 당일영상 외에는 포렌식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초범임을 강조하고 성관계 영상은 있으니 범행만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의뢰하고 싶은 내용은 의견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진술이 실질적으로 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